



**WE-BING
IDEATION**

WORKSHOP

진행 개요

위빙은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모여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구상하는 단체입니다. 더 많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아이디어이션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콘텐츠인가요?

비영리 서비스를 구상하는 과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 우리 모두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 비영리 디지털 서비스 기획에 관심이 있으신 분

키워드

사회문제, 디지털 서비스, 아이디어이션



위빙(WE-BING)?



누구나 꿈꾸는 좋은 세상, 다함께 만들 수는 없을까?

위빙은 “모두의 힘”을 믿습니다. 작지만 희망을 가진 개개인이 모인다면 누구나 꿈꾸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빙은,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고 싶어하는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모여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모이게 되었습니다.

2015년 말에 온라인을 통해 모이게 된 위빙은, 첫 프로젝트도 온라인 회의만을 통해 기획 및 제작했습니다. 팀원들은 서울, 제주, 프랑스, 미국 등에서 시차를 극복해가며 인터넷 통화를 해가며 작업을 했지만, 아쉬움도 많았기에 두 번째 프로젝트를 더 만반의 준비와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네 후보 쉽게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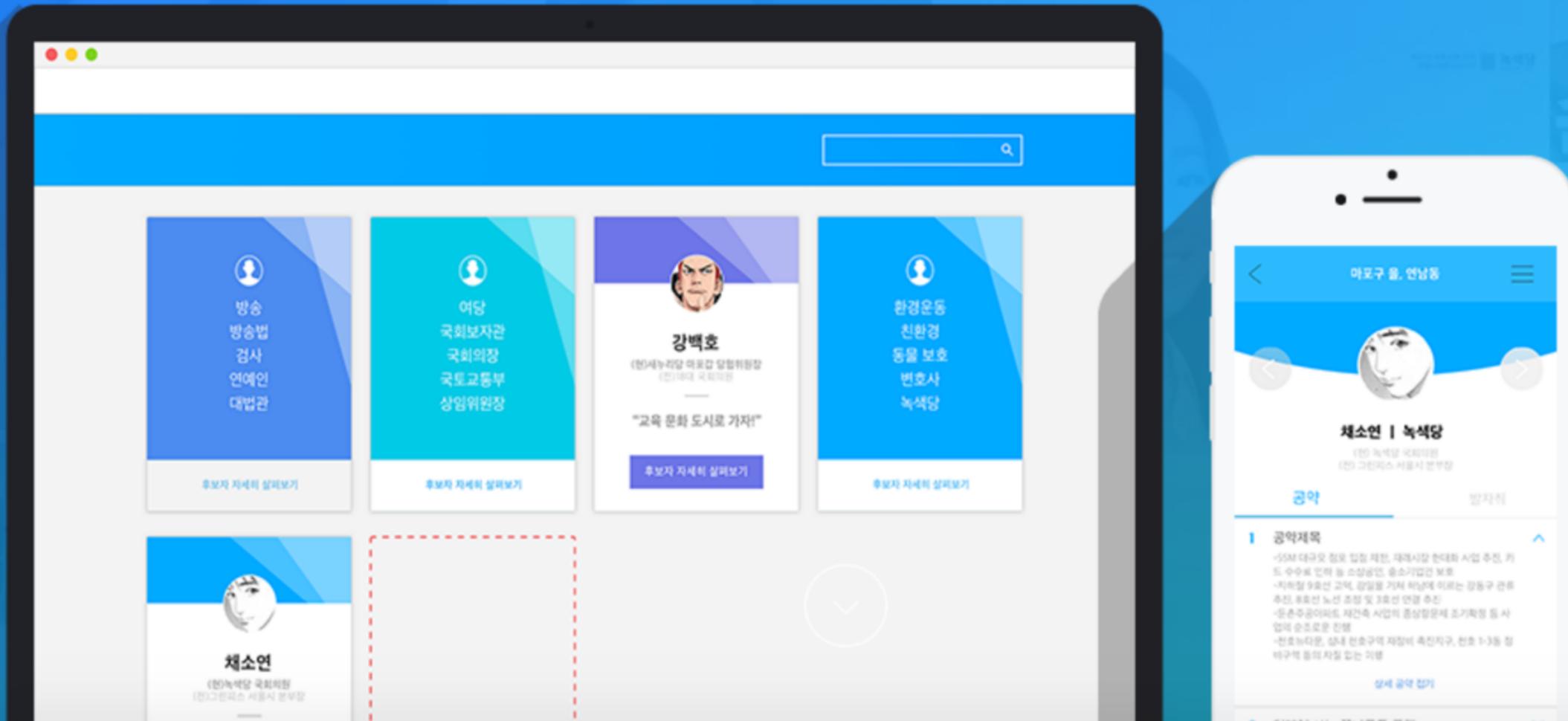
선거 공약은 물론, 발자취까지!

첫 프로젝트의 아쉬움, 더 나은 프로젝트를 위해

위빙의 첫 프로젝트는 16년 4.13 총선을 위한 서비스였습니다. 유권자들을 위해 공약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발자취 등을 사용성 측면에서 개선한 형태로 제공하고자 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비슷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고, 관심을 받은 서비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들이 정말 유저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고, 유저들이 만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같이 대화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위빙 아이디어이션 워크샵에 초대합니다!



무엇을 위한 워크샵?

Double diam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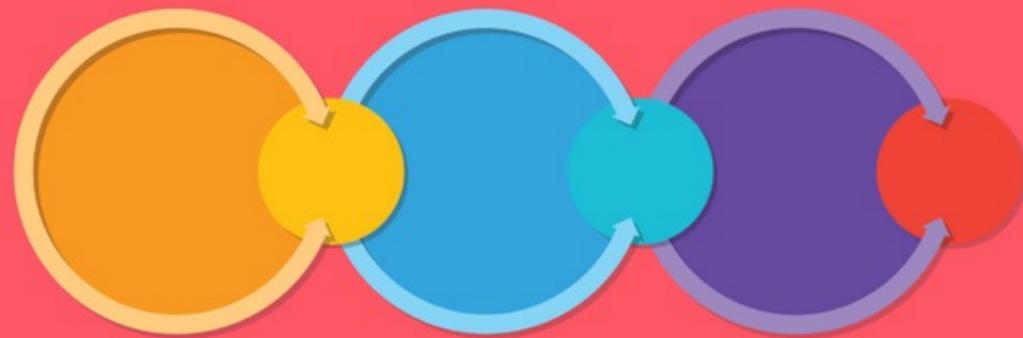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를 찾는 방법?”

지난 프로젝트에서 우리의 고민은 “비영리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였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는 방법을 고민하고자 했습니다.

많은 영리단체들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을 우리의 다음 프로젝트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Design Sprint Methods



Playbook for start ups and designers

OPENIDEO와 구글

OPENIDEO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전세계인이 인터넷 플랫폼상에서 생각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제시하는 디자인 스프린트도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이해하고, 핵심 사안으로 좁히고, 또 다시 다양한 제안들 중에서 하나의 해결책을 선택하고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문제와 사람들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가장 최선의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론입니다.

위빙은 이 방법론을 이번 아이디어이션 워크샵에서 많은 사람들과 시도해보고자 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



시간 : 6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점심시간 포함)

장소 : 서울시 NPO 지원센터(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2층 교육장 [주다])

주제 :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쉽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까요?

왜 사회문제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어려울까요? 바빠서,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해결책을 잘 모르겠어서, 의견을 표현하는게 어려워서 등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개발자와 디자이너는 이에 대해 어떤 재미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신청 방법 : 초대장과 함께 보내드리는 링크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입해주신 정보는 팀 구성에 참고할 예정이에요.

참고사항 : 간단한 간식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식사는 제공되지 않아요ㅠ

워크샵에 오면 할 수 있는 것

- 다른 분야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 디자인 스프린트 / 아이디어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
- 새로운 서비스를 생각해보는 즐거운 경험
-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 공유

워크샵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

- 토론보다는 토의!
- 부담없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세
- 자신의 지식, 경험, 생각을 마음껏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 워크샵을 즐기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쉽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까요?”

위빙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아이디어이션 워크샵에 참여하고 싶은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기존 위빙 팀원들을 포함해서 팀원들의 주변 지인, 페이스북 등을 통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분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워크샵 당일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셨던 분부터, 대학생, 디자이너, 개발자, 편집자 등 다양한 배경의 분들이 모여주셨고, 함께 같은 주제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워크샵 과정과 내용

UNDERSTAND

1. 디자인 과제 /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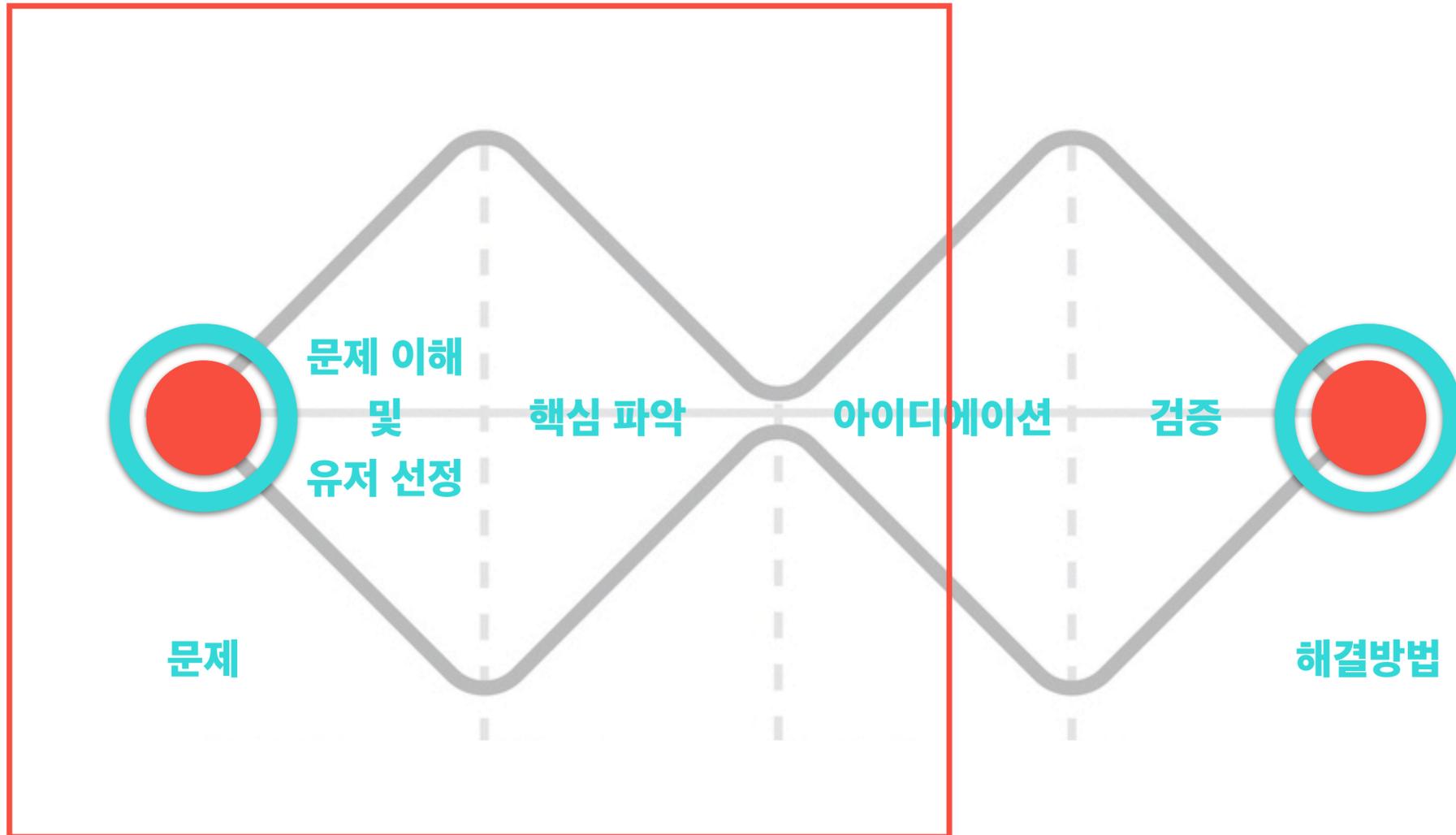
2. 우리의 유저는?

0. 프로세스 이해하기

워크샵은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워크샵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어떤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지, 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전 설문조사에서 이 프로세스를 체험해보신 분도 있었지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이 많다고 해서, 최대한 세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이 서툴렀지만, 실제 과정에서는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감을 많이 잡아가신 것 같아요.

WE-BING IDEATION WORKSHOP



0. 프로세스 이해하기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위의 이미지처럼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법에 이르기까지, 사고를 확산시키고 수렴하는 과정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결론을 내리기보단,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해 **문제와 유저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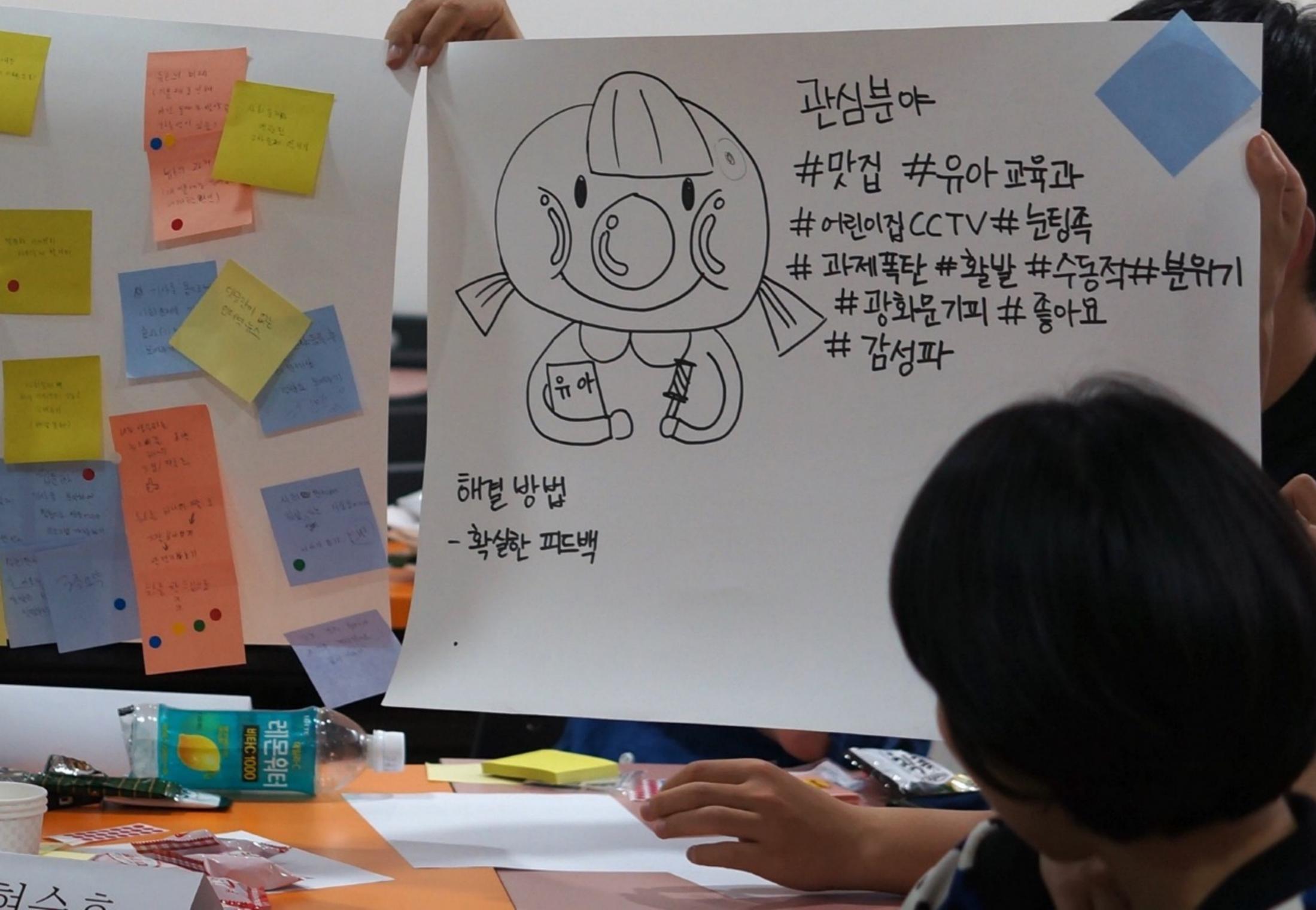


1. 주제 이해하기

(‘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오늘 워크숍은 옳고 그름에 대한 토론이 아닌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주제를 이해하는 과정도 가벼운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자신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 관심을 표출하는지, 내 주변 친구들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라 다들 편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테이블 사람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왜?’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심분야

#맛집 #유아 교육과
#어린이집 CCTV #눈팅족
과제폭탄 #활날 #수동적 #분위기
#광화문기피 #좋아요
감성파

해결 방법

- 확실한 피드백

2. 누구를 위해 만들 것인가

(우리의 유저가 될 사람들에 대해 깊게 이해하기)

왜 유저에 대해 고민할까요? 단순히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라는 접근이 아니라 '내 가까운 친구 위빙이는 왜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을까?'라는 질문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경향, 문제의 배경 등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더 많은 측면을 자세히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팀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한 명의 새로운 유저를 만든 팀도 있었고, 팀원 중 한 명을 유저로 정해서 심층적인 인터뷰를 한 팀도 있었습니다.



3. 아이디어이션

(내가 생각하는 이 유저에게 필요한 기능?)

앞서 정해진 유저에게 어떤 서비스가 가장 필요할까요? 참가자들은 주제에 대해 나눈 이야기와 유저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에 적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오래 고민하시던 분들도, 점점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에 하나 둘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4. 아이디어 공유하기 (서로의 아이디어 연결해보기)

각자 조용히 적었던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는 시간! 한 사람씩 발표하지 않고 비슷한 아이디어라면 같이 이야기하고, 정반대의 이야기여도 어떤 점에서 다른지 설명하면서, 즐거운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모두의 공감을 받은 아이디어도 있었고, 이거 가능할까? 하면서도 재미있는 아이디어들도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었지만 이야기에 활기를 띄는 듯해서, 진행자들도 중간에 끊지 못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더하기도 했어요.



5. 각 팀의 아이디어 소개

같은 테이블의 사람들과 공유한 아이디어들은 서로 연결되고 조합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리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정리된 각 팀의 아이디어를 서로의 팀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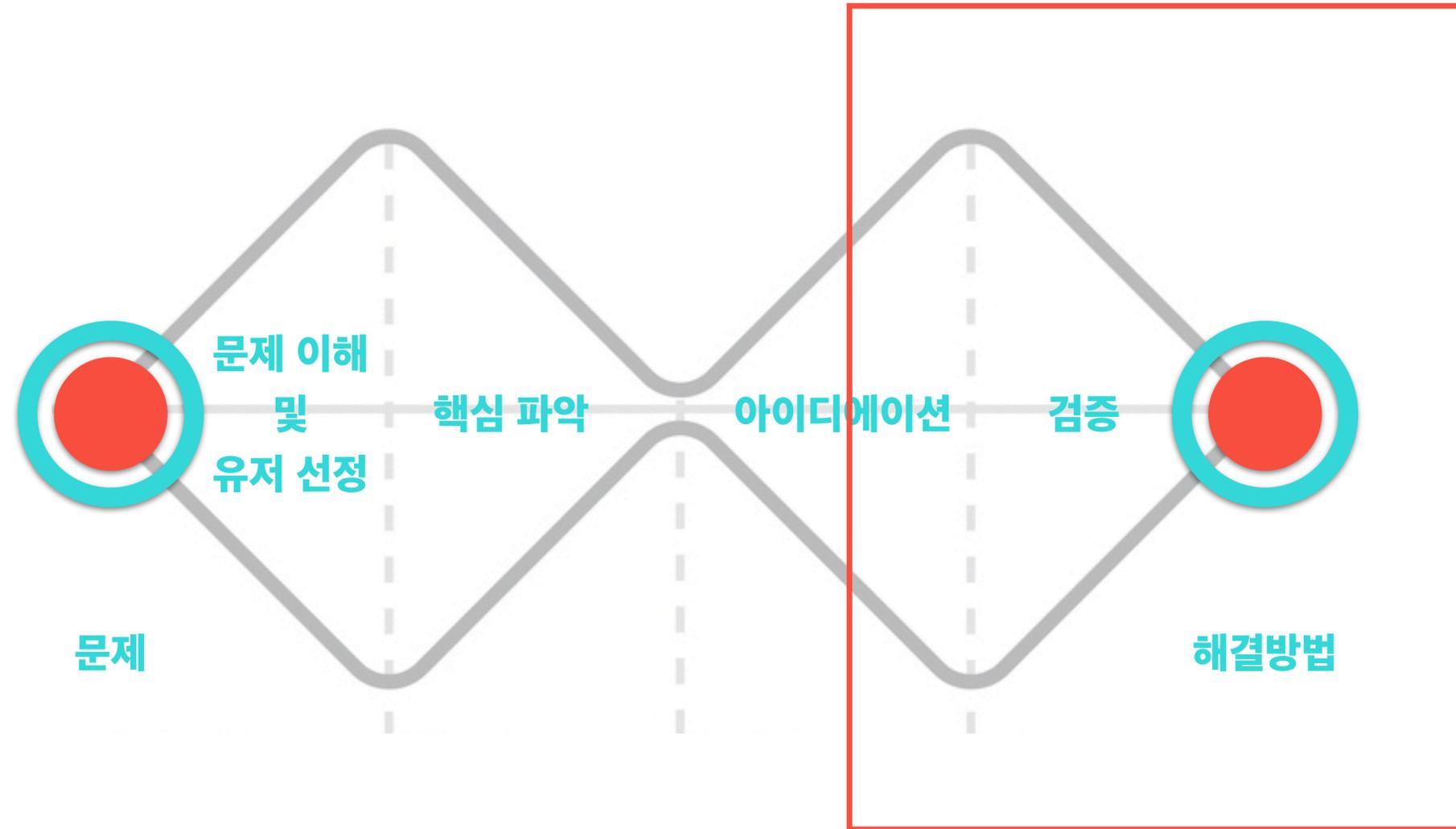
같은 주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아이디어들도 많았지만, 각 팀이 정한 유저가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한 아이디어로 나온 내용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워크샵의 마지막이었던 서로의 아이디어 소개가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워크샵의 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장에서 실제로 나온 아이디어들과 앞으로 위빙이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워크샵 결과와 앞으로의 위빙

WE-BING IDEA DEVELOP



6. 아이디어 디벨롭

(그래서, 유저가 원하는건?)

아이디에이션 워크샵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위빙이 다음 프로젝트로 진행할 프로젝트의 큰 자산입니다. 크고 작은 기능들을 검토하고 조합해서 유저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위빙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을 시작합니다.

검증 과정에는 가벼운 리서치부터 시작해서, 유저 인터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프로토타입 제작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쉽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주제에서 크게는 두 가지 측면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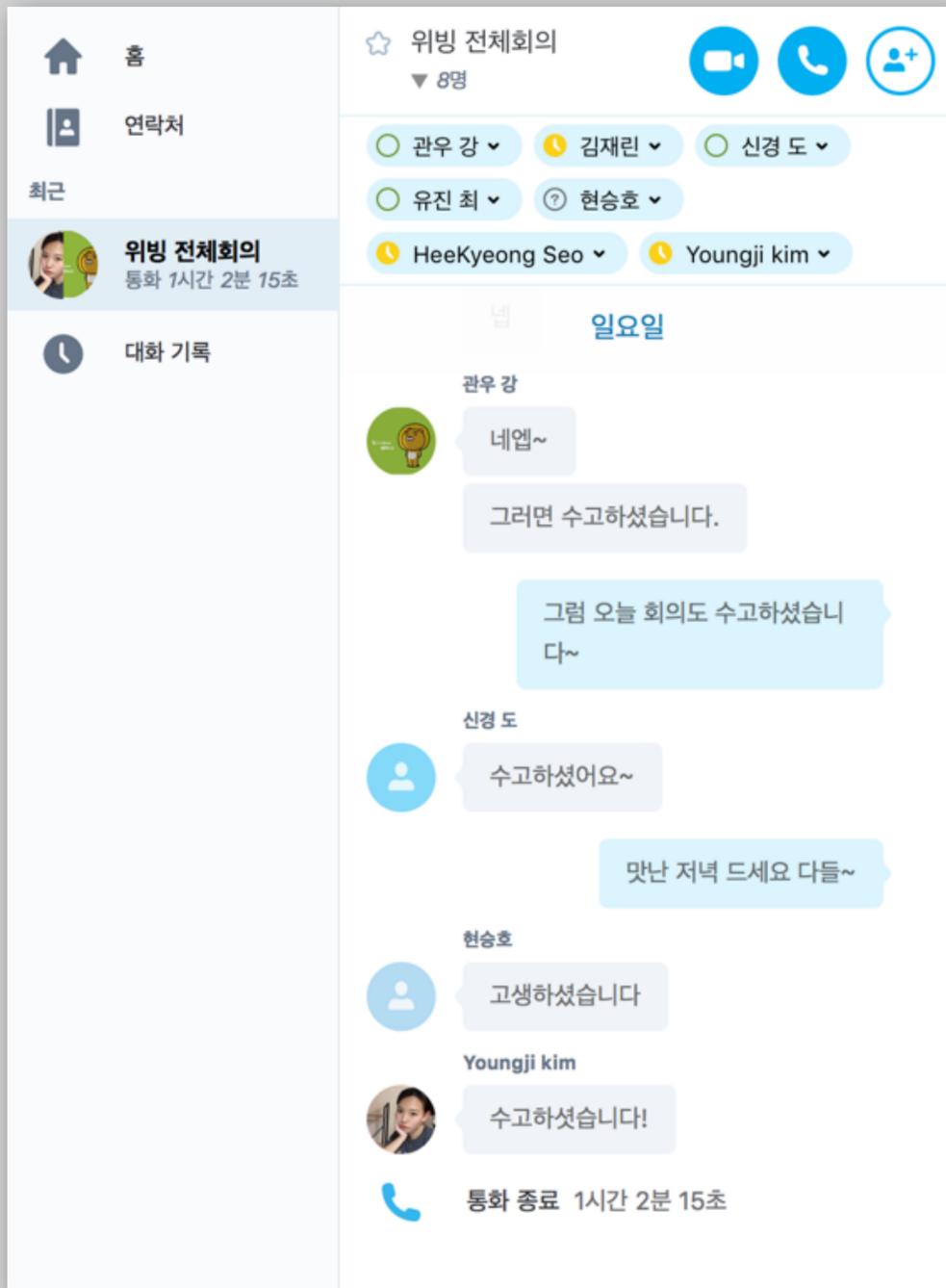
ex) 뉴스나 기사를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나와 관련된 기사를 소개해주는

자신이 공감하는 사회 문제나 이슈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에 대한 서비스

ex) 자신이 관심있는 이슈에 대한 시민단체로 매칭받기, 댓글을 남기도록 유도하기

카테고리	유저 입장	행동	우리 입장	기능	방법
개인화	자신과 관련된 사회 이슈를 한 눈에 쉽게 읽기 위해	관련된 이슈를 소개해주는 피드를 읽는다	자신과 관련된 사회 이슈를 한 눈에 쉽게 보여주기 / 추천		페이스북 좋아요 성향 분석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 / 주변의 이슈를 연결해서 내가 담은 관심 포스팅을 분석해서 내가 관심있는 분야를 사용자가 선택해서
	보고싶지 않은 / 불필요한 기사를 걸러내고 기사를 제공받기 위해	필터링 기능을 켜고 서비스를 이용한다.	기사에 대한 필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사람들이 불필요한 기사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한다.
	다른사람의 의견 보여주기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여론을 참고하기 위해 불특정다수	입장에 따라 시각화된 댓글을 본다	댓글의 입장을 쉽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특정 편을 색상으로 지정해 댓글창 이미지를 색으로 시각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보기 위해	팔로우할만한 사람을 추천받아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본다.	피드를 받아볼만한 사람을 추천해준다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을 추천 자신이 좋아요한 글과 비슷한 글을 추천해준다.
떠먹여주기	친구 및 지인(더 가까운사람)의 생각을 보기 위해	다른 친구들의 관심 사회 문제를 분석 및 시각화한 자료를 본다	주변의 다른 친구들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어떤 정책과 사회문제에 대한 이슈로 물려있는지 도표화한다. 채팅방 분석해서 그 방의 가장 핫한 이슈 찾기 사회 이슈에 대해 관심을 표시할 수 있게 하고 그 팔로워를 보여준다.
	직접 찾아보기 어렵고 어디서 봐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간결하게 만들어진 / 추려진 뉴스를 본다.	기사와 뉴스들을 정리해준다.		시간의 흐름대로 기사를 보여준다. 키워드들을 분석해서 관계도를 보여준다. 이 뉴스가 어떤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준다.
		어디에서 어떤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지 본다.	자신이 관심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해준다.		관련된 사회 단체 / 행사 / 모임 등을 정리해둔 사이트를 만든다 관심사 / 뉴스 / 지역 등 사용자가 정보를 선택하면 그에 맞는 모임을 추천해준다. 플랫폼을 만든다(단체들이 알아서 등록하고 알아서 찾아가라)
		착한 기업이나 나쁜 기업 등 소비 활동으로 의견을 표시한다.	소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윤리적 문제가 있었던 기업의 제품들을 소개한다.		관련된 이슈에 대한 스토리펀딩(후원)으로 연결해준다. 애즈온처럼 광고 개념으로 비영리기업들이 등록하고 후원받을 수 있도록.
소극적 참여 방식 유도	과도한 논쟁이나 관심 등 때문에 의견을 남기는 것을 어렵게 느낀다.	댓글을 남겨서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본다. (댓글 작성 유도)	댓글을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관련 정보를 정리한 사이트를 만든다. 봇 느낌으로 특정 질문에 대해 질문하면 정해져있는 답변을 해준다. (옐로아이디처럼)
	누군가가 나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이 싫어서	익명으로 의견을 표시한다.	익명 댓글 기능 제공		댓글을 남겨야 남의 댓글을 보여준다. 익명 댓글 기능이나 좋아요, 공감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워크샵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분류하고 정리했습니다.
아이디어들을 크게 4가지의 카테고리로 정리하고,
유저 입장에서 어떤 니즈로 인해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지 /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게 될 위빙의
입장에서 어떤 기능을 어떤 방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지를 나눠서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위빙에게 남은 과제

저번 프로젝트에서 아쉬웠던 점, 보완해야할 점으로 남았던 점이 유저테스팅입니다. 실제로 유저가 서비스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서비스가 매끄럽게 운영되는지 등에 대한 실제 유저의 피드백 단계가 더 철저해야 된다는 점을 느꼈었기에, 이번 프로젝트는 특히 이 질문들을 스스로, 팀원들에게 되묻는 과정이 될 듯 합니다.

“이 기능이 정말 유저에게 필요한 기능일까?”

지금 위빙은 워크샵의 아이디어에 대해, 정말 필요한 기능인지, 정말 유저가 이 기능을 유용하게 느끼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빙에게 남은 건 반복적인 회의, 프로토타입(유사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디자인이나 기술을 구현해보는 것), 유저 테스트, 그리고 또 회의... 한 번의 워크샵이었지만 그 속의 아이디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가는지도 워크샵에 관심을 보여주셨던, 워크샵에 함께 해주신 분들과 공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위빙 연락하기

위빙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언제든지
부담없이 여기로 연락주세요!

위빙의 소식을 계속 듣고싶으신 분 /
위빙의 프로젝트 결과물이 기다려지시는 분 /
위빙 자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 /
위빙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

<https://www.facebook.com/funpolitic>
<http://webing.kr>

위빙은 현재 2가지 채널을 운영중입니다.
위빙 페이스북 페이지는 크고 작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빙에 대한 소식도 전달하게 될 계획입니다.

위빙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위빙과 위빙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고, 뉴스레터 형태로 콘텐츠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Thank you =)